



고향을 생각하고 지키며 이어가는 거점 시설입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도미오카마치라는“토지”와
저희가 경험한 10년간의 기록입니다.

2011년 3월 11일까지 그곳은 “당연한 일상”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생긴 원전
사고는 도미오카마치에서 생활하는 “당연한 일상”
을 순식간에 앗아 갔습니다.

3월 12일, 마을 주민은 다른 토지에서 살아갈
각오조차 하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

본관은 도미오카마치의 “특징”과 이 지역에서
생긴 자연재해 및 원전 재해의 “특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토지와 도미오카마치의
비슷한 곳이나 다른 점을 비교하며 관람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도미오카와
같은 복합 재해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과 마주하는 방식이 조금 바뀔지도
모릅니다.

- ◆도쿄 방면에서
 - 도쿄역→JR조반선 특급 이타치 이용(약 3시간).....▶ 도미오카역.....▶ 도미오카 아카이브 뮤지엄
 - 도쿄역→고속버스 이용(약 4시간20분).....▶ 도미오카 영업소.....▶ 도미오카 아카이브 뮤지엄
 - 조반 자동차도로 경유 일반도로 이용(약 3시간15분).....▶ 도미오카역.....▶ 도미오카 아카이브 뮤지엄
- ◆센다이 방면에서
 - 센다이역→JR조반선 특급 이타치 이용 (약 1시간30분)▶ 도미오카역.....▶ 도미오카 아카이브 뮤지엄
 - 조반 자동차도로 경유 일반도로 이용(약 1시간40분)▶ 도미오카역.....▶ 도미오카 아카이브 뮤지엄
- ◆이와키 방면에서
 - 이와키역→JR조반선 이용(약 40분)▶ 도미오카역.....▶ 도미오카 아카이브 뮤지엄
 - 이와키역 앞→신조반 교통버스 이용(약 1시간10분)▶ 도미오카역 앞.....▶ 도미오카 아카이브 뮤지엄
- ◆도미오카역에서 본관까지(일반도로 약 2.3km)
 - 택시 또는 순환버스 이용(약 5분)



도미오카 아카이브 뮤지엄

The Historical Archive Museum of Tomioka

[개관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최종 입장: 오후 4시30분)

[휴관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휴관)/연말연시

[주소] 우편번호 979-1192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도미오카마치
오아자모토오카 아자오쓰카 760-1번지

[전화번호] 0240-25-8644



TOMIPPY

도미오카 아카이브 뮤지엄

The Historical
Archive Museum
of Tomioka

수장 공간

마을 주민의 협력으로 보전된
귀중한 지역 자료를 수장 보존하는 곳입니다.
대학 등 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정리 및 연구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도미오카마치의 성립 과정과
복합 재해가 초래한 지역 변화를
전합니다

기획 전시실

상설 전시실

도미오카마치를 중심으로 지역사와 그 특징을 전달함과 동시에
지역의 운명을 바꾼 지진 재해와 원자력 재해를 역사의 큰 “1 페이지”로서 계승해
마을의 경험을 장래와 세계로 발신합니다.



〈역사 계승 - 하야마신사(麓山神社) 불축제〉
400년의 역사를 지녔다는 하야마신사의 불축제.
8월 15일 밤, 남자들이 관솔불을 젊어지고 산을
뛰어오르는 전통 행사입니다. 도미오카마치의
역사, 성립, 특징은— 고문서나 토기, 식물, 화석,
인터뷰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도미오카마치의 역사”를 풀어냅니다.



〈재해 경찰차 - 후타바 31호〉
두 명의 경찰관이 승차해 목숨을 걸고 주민
피난 유도에 임했던 경찰차는 쓰나미에 휩쓸려
도미오카강 하구 부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족과 후쿠시마현 경찰의 이해, 주민 유지의
협력하에 보존되었습니다. 재해의 기억과 함께
두 분의 용기 있는 행동을 전승해 갑니다.

〈지역의 일상 - 자안관음상(子安觀音像)〉
안산을 기원하며 많은 주민들이 기도를 바친
자안관음. 임신한 여성은 참배 시 관음님
으로부터 한텐이나 배개를 빌리며 무사히 출산을
마치면 감사의 뜻으로 배수로 봉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신앙, 풍속 등 일상생활에 뿌리내린
“도미오카마치의 문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시계로 보는 복합 재해〉
마을에서는 몇몇 시계를 보전했습니다. 이
시계들을 보전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진 재해 직후의 복구 부흥
착수조차 허락되지 않는 원자력 피해지
특유의 것입니다.
같은 시계라도 각각이 지난 재해 배경
정보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운 갤러리

“마음의 부흥”을 위한
마을 주민과 지역 주민, 방문객의 교류장입니다.
워크숍 등의 사업도 실시합니다.

〈주요 구성〉

- 중앙 상점가 모형 ○ 메시지 전시
- 고향 3D체험(MReal)
- 시어터(3가지 상영 방송)
 - ① 동일본 대지진 “도미오카마치의 기록”
 - ② 마음의 증언
 - ③ 새로운 시작(애니메이션)



지역 자료·지진 재해 유산 보전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미오카마치에서는 “지진 재해 유산 보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역사·문화 등의 보존
프로젝트팀을 조직해 지진 재해 유산 등의 보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마을 역사를 전하는 지역 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을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